

주말 인터뷰 | '나인' '알함브라'... 판타지 드라마의 개척자 송재정 작가

'포켓몬 고' 해보고 뒤통수 딱... '알함브라' 영감 얻었죠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



'문명' '대항해시대' 섭렵한 게임덕후 게임소재 드라마 가능성 무궁무진해 개연성 부족? 판타지엔 정답 없어요 멜로 잘 녹이지 못한 건 나도 아쉽죠

대한민국이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에 빠져 있던 2016년. 드라마 '더블유'를 끝낸 송재정(46) 작가가 열기에 떠밀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포켓몬 고'를 열어봤다.

"우와! 이거 엄청난데?" 소재 고갈로 방황하던 그에게 '포켓몬 고'의 증강현실은 뒤통수를 탁 치는 '한 방'이었다. 그 길로 쓰고 있던 블랙코미디 드라마 시놉시스를 뜯어 고쳤다. 드라마 속 삼류 기타리스트 유진우(현빈)는 칼을 든 투자가 대표로 재탄생했다.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알함브라)의 기상천외한 시작이었다. "저도 이런 작품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더니깐요. 하하."

● "확장시절? '안 모범' 학생이었다"

송재정 작가는 '순풍산부인과', '크크섬의 비밀' 등의 대본을 쓴 시트콤 출신이었다. 그런 송 작가가 정극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주위 모두가 말렸다. tvN '인현왕후의 남자'(2012)를 쓸 때까지만 해도 "너무 많은 구박"을 받았다. 하지만 7년 만에 "제작사가 믿어주는" 드라마 작가가 됐다.

그렇게 된 데에는 '나인:아홉 번의 시간여행'(나인), '더블유' 등을 통해 입증한 독특한 세계관의 힘이 컸다. 송 작가가 지닌 독창성의 원천은 뭘까.

"독창적이란 칭찬은 민망하다.(웃음) 평소 소설 같은 스토리텔링 콘텐츠보다 평전, 잡지 등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본다. '알함브라'의 유진우도 미국 테슬라사의 대표 엘론 머스크의 자서전을 읽다 영감을 얻어 만든 인물이다. 확장시절이 남달랐나? 전혀. 눈에 안 띄면서도 한심한, '안 모범' 학생이었다. 공상하고, 게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안 했다. 하하."

작가로 데뷔한 후엔 쓰고 싶은 대로 써왔다. 코미디가 좋아서 시트콤을 만졌고, 판타지와 멜로가 하고 싶어 드라마로 넘어왔다. 초반에는 "판타지의 기본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날선 시선도 받았다.

"판타지라는 게 어떻게 쓰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송 작가는 오기가 생겼다.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드라마를 써 '송재정식 작법'을 만들었다.

"예능프로그램과 시트콤을 참 오래했다. 드라마를 써보겠다고 연습을 하거나 공부한 적은 없다. 정통 드라마와는 거리가 먼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이런 '혼종'의 이야기를 내놓는다.(웃음) 나는 16개의 엔딩을 정해놓고, 한 시간짜리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스토리를 짜다. 엔딩이 정점을 찍도록 하고, 이를 이어가는 작법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낯설어하는 시청자가 있는 것 같다. 노력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 "게임 소재, 시도에 그치기에 아까워"

송 작가는 "은갖 게임을 섭렵한" 경험을 갖고 있다. '문명', '대항해시대', '클래시 오브 클랜'과 같은 게임을 즐겼던 송 작가의 눈이 빛났다. 게임 사랑이 결국 '알함브라'를 탄생시켰다. '알함브라'로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기술력을 확인했다는 송재



▲ tvN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 MBC '더블유'



▲ tvN '인현왕후의 남자'

정 작가는 "이렇게 잘하는 걸 아는데 시도만 하는 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아직 기획 중인 후속작은 없다. 다만 하나를 시작하면 질릴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다. '인현왕후의 남자', '나인'을 할 때에도 타임슬립만 쓰지 않았다. 이번엔 게임의 룰을 설명하는 것에 그쳤으니, 다음엔 제대로 퀘스트(일종의 임무)에 들어가면 어떨까 한다. 한번 해봤으니 시청자도 잘 따라올 것 같다."

이제 10부작 이내의 시즌제 드라마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송 작가는 "내 작법이 16부작 드라마를 만드는 것보다 짧은 시즌

물에 더 적합하다는 걸 '알함브라'를 보며 깨달았다"며 시즌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 "약점, 늘 극복하기 어렵다"

독창성은 인정받지만, '알함브라'에는 여러 비판도 뒤따랐다. 느린 전개, 개연성이 부족한 채 부분을 때우는 '마법'이란 장치가 그렇다. 송재정 작가는 지적에 나름의 해명을 내놨다.

"개인적으로 전개가 느린 것은 못 느꼈다.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고뇌하는 유진우의 감정이 중요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에 집중했는데,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 재미를 느꼈던 시청자로서는 맥이 탁 풀렸을 수도 있다. '마법'의 경우, 증강현실 소재이니 SF물을 기대했던 사람이 많아 실망한 것 같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아마 SF물이 됐을 거다. '알함브라'가 판타지와 SF의 경계를 흐트리며 진행되는 것처럼 경계를 오가는 것을 잘 한다. 마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줬다."

멜로와 판타지가 잘 맞물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송 작가는 이것만큼은 "하드한 이야기에 멜로를 넣는다는 게 참 어렵더라"며 단번에 인정했다. 멜로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 같다는 반응도 봤다는 그는 "저 멜로 좋아해요"라고 항변(?) 했다.

원래 진우와 희주(박신혜)는 우정에 가까운 관계였지만, 현빈과 박신혜를 캐스팅하면서 러브라인으로 바꿨다. 송 작가는 "두 분의 미모가 너무 가까워서 스토리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멜로를 추가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멜로가 어렵게 꼬일 수밖에 없었음도 시인했다.

송 작가는 "약점은 늘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겸손해했지만, 새로운 작품에서 그의 독창적인 시선이 다시 한번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송재정

▲1973년 11월 28일생 ▲1996년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SBS '폭소하이スクール'로 작가 데뷔 ▲시트콤 '똑바로 살아라',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등 집필 ▲2007년 MBC '거침없이 하이킥' ▲2013년 tvN 드라마 '나인:아홉 번의 시간여행' ▲2016년 MBC '더블유'



연출자 또 변경? '조들호2' 방송 초부터 잡음

메인 PD 교체설...박신양 입김 예측도 고현정은 시간 지키지 않아 촬영 차질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죄와 벌'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방송을 시작한 지 2주 만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현재까지 알려진 '동네변호사 조들호2'(조들호2)의 상황은 평범치 않다. 촬영을 앞두고 한 차례 연출자가 바뀐 데 이어 급기야 방영 도중 메인인 A팀 연출

자가 한상우 PD에서 B팀 연출자 이호 PD로 교체됐다는 이야기가 불거졌다. 일부 조연출은 이미 촬영에서 손을 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KBS는 "한상우 PD가 하차했거나 이호 PD로 교체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적극 부인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KBS가 '조들호2'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화하려 나서고 있지만, 한창 방송 중인 드라마가 갑자기 예 이 같은 상황에 놓였는지 궁금

증을 자극한다.

드라마 관계자들은 주연 연기자 박신양이 '조들호2'의 판권을 소유한 것과 관련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시선을 보인다. 주연이면서 판권을 소유한 만큼 그의 의견이 드라마 제작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시즌1이 최고 17.3%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시즌2는 5~6%대에 머물고 있어 반등의 기회가 필요한 상황. 박신양은 이와 관련해 연출자와 의견을 교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양

고현정

이와 함께 최근 고현정이 촬영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잠시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도 흘러 나왔다. 앞서 그는 지난해 SBS '리턴' 출연 중 연출자와 겪은 불화로 촬영장을 무단이탈하고 중도 하차한 바 있다.

'조들호2'는 작가에 대한 정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또 다른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시즌1의 이향희 작가가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홈페이지나 방송사와 홍보사가 배포하는 보도자료, 포털사이트 등에는 작가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앞서 시즌1은 이향희 작가를 포함해 잦은 작가 교체로 논란을 산 바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김철조·김대권 기자

